

대학생의 기초학력증진을 위한 제안: 영어/수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양 장 용* · 강 승 필**

1. 서 론

지금까지 대학정원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수를 만족시키지 못하였고, 그 결과로 대학입시는 치열할 수밖에 없었다. 근래의 상황은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경향이다. 대학을 들어가는 문이 몇 해 전에 비해 많이 넓어졌다고 한다. 급기야 올해는 그 상황이 많이 달라질 모양이다. 대학의 정원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수보다 많아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각 대학의 신입생 유치 작전도 그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하고 뜨겁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생각 할 수 없었던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가 붓물을 이루고, 몇몇 대학에서는 신입생을 많이 보내주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사례까지 한다고 한다. 경쟁 속에서 살아 남기 위한 특이한 전략이라 아니할 수 없다. 취업률의 향상, 복지 대책 등 다양한 내용들이 신문에 소개되곤 한다. 이와 더불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학생들의 기본 실력 증진 또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한다. 어떤 대학을 졸업하면 어느 정도의 실력의 배양을 약속 받을 수 있다면, 이 또한 학생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본 고에서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증진을 위한 방안을 사례조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장에서 연구의 목적과 배경에 대해 간략한 살펴보고, 다음 장에서는 실제 설문조사를 통한 사례 분석이 주어졌다. 4장에서는 이러한 사례 분석이 시사하는 바를 중심으로 몇 가지 제안이 만들어 졌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위한 결론이 주어졌다.

*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연구원

**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연구원

2. 연구의 목적과 배경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대학이 추구하는 기본 골격과 목표는 변화의 양상을 보인다. 중세의 대학의 목표는 인문 지향적인 교양인의 양성을 가장 큰 기본 가치로 쳤다. 자아와 자기의 인격을 형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국사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자질을 키우는 것이 그 근본 목적이라 하겠다. 그 후 산업화를 거치면서 대학이 내거는 기본적인 가치관은 시대를 반영하며 부침을 거듭하게 된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대학에서는 산업과 기술이 접목된 정보화된 지식의 습득을 강조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우선, 연구에 앞서 교양교육이란 무엇인가를 간략히 살펴보자. 제주대학교 교양교육 발전 계획(2001:1)에 따르면, 교양교육의 분명한 목표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교양교육의 분명한 목표는 전문가나 특수직 종사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는 일이다. 모든 사회적, 문화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육의 불변한 목표는 훌륭한 지식인을 배출하는 일이다. 전문지식만 있고 인간성이 결여될 때 훌륭한 지식인이 될 수 없고, 인간성과 전문지식이 없을 때 또 훌륭한 지식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인간성과 전문지식을 갖춘 지식인을 양성하는 것이 대학의 제일의 과제이다 (강조, 저자).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처럼 대학의 근본목표는 학생들이 교양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과 아울러, 각 전문 분야의 지식을 함양하고 있는 전문 지식인의 양성을 또 하나의 목표로 정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다양하고도 폭넓은 분야에서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교양교육은 다학문적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정신능력과 인식능력을 계발하고 발현한다. 자연과학과 문화과학이, 문화과학에서는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이, 인문과학에서는 철학, 예술학, 언어학, 역사학, 종교학이 포함되어야 한다.....(p.4).

이와 같이 교양교육의 연구에 있어서 대부분의 연구의 초점은 교양의 양적 확대와 팽창에 관심을 두어 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대학인으로서

의 갖춰야될 다양하고도 폭넓은 소양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에 못지 않게 강조되어야 할 것은 고등학문을 하기 위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지식의 함양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교양교육 발전계획에서도 예를 들면, 교양 교과목의 정비와 기초교육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3. 사례조사 및 설문 분석

이 연구는 순수 학문적 탐구를 목표로 하고, 학교당국에게는 기초학력을 위한 틀을 마련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기초학력증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례조사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에서는 학생들의 기초 학력증진을 위해 영어와 수학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클리닉을 두 차례 개설하였다. 제1차 교육과정은 2002학년도 1학기에 4주간 (5월 6일 - 6월 4일) 시범적으로 운영되었다. 이 과정에서 두 과목을 합한 등록된 학생의 수는 30 명이었다. 짧은 홍보기간동안 학생들에게 홍보가 되지 못하였다는 점이 개선점으로 지적되었다. 이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보다 본격적인 기초학력 클리닉의 개설은 2002학년도 2학기에도 계속되었다. 제 2 차 운영은 1차보다 긴 10주간 (9월 28일 - 12월 14일) 운영되었다. 2차 운영은 1차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고, 학생들의 호응이 훨씬 나아졌다.

한편, 연구소에서는 기초학력클리닉 운영체제의 개선의 일환으로 자체 설문지를 작성 조사하게 되었다 (설문지 별첨). 이 설문지의 목적은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 이루어 졌다. 설문 조사는 수업시작 1 주 후에 이루어졌다. 설문 유형을 살펴보면, 객관식 형태가 2문항, 주관식 형태가 1문항, 그리고 객관식과 주관식 혼합형이 8문항이 주어졌는데, 이는 학생들의 의견 개진을 보다 자유롭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다.

3.1 설문 내용 및 결과 분석

기초학력 클리닉을 위한 설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즉,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기존의 학습방법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

습자들의 성향 및 태도 그리고 학습전략 등의 개인적 차이를 고려하지는 않았다. 구체적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고, 자세한 설문조사의 내용은 이 논문의 뒤에 첨부되었다.

1. 본 강좌가 개설됨을 어떻게 알았는가에 대한 질문에 학내게시판(36%), 우리학교 홈페이지 게시판(36%), 친구를 통하여(28%) 순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된 바와 같이 학생들의 본 강좌를 접하게 되는 계기는 학내의 시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비공식적으로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본 강좌가 널리 알려졌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대부분은 수강생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 이유를 물었을 때 홍보기간의 짧았던 점과 강좌의 성격을 학생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들 하였다. 이러한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것이 다음 강좌개설을 위한 시정될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즉, 강좌 개설에 대해 충분한 홍보, 예를 들어 강좌 설명회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려되었다.

2. 본 강좌를 수강하게 된 동기를 묻는 질문에 기초실력함양(82%), 시험준비(9%), 기타 영어 회화 같은 실용적인 목적(9%)을 위해서 수강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이 질문은 본 강좌의 성격을 극명히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설문을 통해 보는 바와 같이 이 강좌를 수강하게 된 근본 목적은 전공과정의 고등학문을 이해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 되어지는 영어와 수학 등의 기초실력을 다지기 위해서라고 대답한 학생이 대부분이었다. 학생들의 대부분(82%)의 대답이 이를 반영한다. 학생들은 고등학교시절 영어나 수학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못했고, 그 결과 대학에서 진행되는 강좌에 대해 많은 사항에 고전하고 있음을 종종 이야기했다. 본 강좌를 찾아온 학생들이 자발적인 학습동기가 높다는 것을 고려할 때 많은 학생들이 기초학문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대학의 기본 이념이 고등학문을 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인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기초학력 증진에 대한 재인식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이는 단지 교양과정에서 수강하는 과목들과도 달리 성격이 규명되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3. 영어학습에서 가장 필요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문법(28%), 말하기(21%), 듣기(14%), 쓰기(11%), 읽기(6%)로 조사되었다. 본 질문을 통해

엇 볼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은 영어학습을 위한 기본을 다지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문법과 같은 기본 지식이 갖추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영어공부 뿐만 아니라 외국어로 된 전공서적을 이해하는데도 상당히 고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이와 아울러 말하기와 읽기 같은 영어회화의 필요성도 절실히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질문 역시 기초학력 증진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이 질문은 위에서 본 기초함양의 문제와 더불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 할 수 있겠다.

4. 기초과목(영어, 수학)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1시간 미만(64%), 한 시간 정도(27%), 2시간 이상(9%)으로 조사되었는데, 학생들의 91%가 기초과목을 1시간 이하 공부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에 대한 이해와 태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상당히 흥미있는 질문이다. 학생들이 왜 기초학력 클리닉을 신청하는가에 대한 간접적인 대답인 것이다. 즉, 위의 3의 질문에서 보았듯이 기초가 약한 학생들이 혼자서 영어 혹은 수학과 같은 기초가 없이 이해가 힘든 과목을 독자적으로 해나가기란 약간 힘이 든다는 점에서 이해할만 하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학생들에게 학문에 대한 동기적(attitudinal) 자극과 조언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초학력 클리닉의 의의는 크다.

5. 지금까지 대학에서 받았던 기초과목(영어, 수학)은 몇 과목인가 하는 질문에 2과목(37%), 1과목(27%), 3과목이상(18%), 수강 안 함(18%)을 대답했다.

6. 질문 5에서 대답했던 수강과목에 대한 평균학점이 얼마 인가 하는 질문에 C(46%), B(27%), D이하(27%)라 대답했다. 이 두 질문은 보다 기초학력 증진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근본적인 설문이라 하겠다. 5번 설문에서 보듯이 2과목이상을 수강한 학생이 절반을 넘었고, 6번 설문에서 보듯이 75%정도 학생들이 평균학점이 C이하였다는 것은 근본적인 고등학문을 하기위한 발판으로써의 학력증진을 위한 교양교육의 문제를 제기해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즉, 두 과목이상 수강하고 그리고 학점이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은 여전히 기초학력의 증진에 걸림돌이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하겠다. 여기서 문제라 말

함은 과목자체의 문제나 강사의 자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님을 지적해 두고 싶다. 교양과목의 구조적인 문제라 할 수 있겠다. 이 문제와 관련해 현장 강사 들로써 두 가지 점을 지적한다면, 첫째는 교양과목 수강에 있어 학생의 능력 차 없이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외국어나 수리과목에 대한 기초의 이해와 차는 수업의 수준과 이해도를 결정한다고 할 때 이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하겠다. 둘째로, 이러한 기초학력증진을 위한 교양과 그렇지 못하고 진정한 의미의 여가 선행과목으로써의 교양과의 관계도 한 번은 재고 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논문의 성격상 더 이상의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별도의 장에서 이러한 문제가 진지하게 개선되고 논의될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겠다. 학생들도 보다 교양과목이 학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중간이상의 학생을 중심으로 교양과목(영어/수학의 경우)이 진행되고 있음을 개인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7. 영어 공부를 위해 사용하는 매체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어학교재(25%), 독학(25%), 학교수업(19%), 학원(19%), 컴퓨터 활용(12%)로 조사되었다. 수업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38%)보다 수강생의 62%가 컴퓨터나 어학교재와 같은 교육매체를 통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 할 만한다. 이 질문을 통하여 적어도 수강학생 62%정도는 기초학력의 필요성을 알고 있으며, 스스로 기초학력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이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습상담소 운영이나 기초학력 클리닉과 같은 강좌를 다양한 형태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을 느낀다.

8. 7번에서 선택한 교육매체의 만족도는 보통(46%), 만족(27%), 불만(18%), 매우불만(9%)으로 오직 27%정도의 학생만이 컴퓨터나 어학교재와 같은 교육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만족하다고 답변했다. 물론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히 연구해야 하겠지만, 단지 교육매체를 통한 수동적인 교육방법은 그 효과적인 면에서 학생과 선생 사이의 상호작용을 기본 전제로 하는 보다 적극적인 수업보다 그 만족도 면에서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예라 하겠다. 미국의 MIT 대학은 2005도까지 전 수업의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고 한다. 이는 교실을 벗어나 단지 수동적인 방식의 한계를 보다 극명히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9. 8번에서 불만족스러운 이유가 무엇 인가하는 질문에 대해 개인노력부족(73%), 강의수준이 높아서(18%), 기타(9%)로 조사되었다. 여기서 18%의 학생들이 강의수준이 높아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교양과목이 단지 교양이란 이유로 학생들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수강신청에 근거를 두고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위에서도 간략히 언급했듯이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순수교양과 학력배양을 위한 교양간의 효율적인 운영의 묘미가 필요한 대목이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강의 수준은 학생들의 학습의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노력여부도 결정짓게 된다하겠다.

10. 본 강좌를 통하여 기초학력실력을 배양하려는 의지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질문에 높다(55%), 매우 높다(9%), 보통이다(27%), 부족하다(9%)로 조사되었다. 64%의 학생이 이 강좌를 통하여 기초학력실력배양의 의지가 강한 반면 36%의 학생의 의지가 보통이라는 것은 강좌의 성격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즉,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초학력을 증진시키려는 학생들이 모였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해 할 만하다. 이러한 성향은 학생들에게 학습 성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인 학습계획, 학습의지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차원의 지원 등의 확고한 교육의지가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게 한다.

11. 이 프로그램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지금 강좌가 정규 과목으로 확정되어 학생들이 기초실력증진과 아울러 학점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였다. 이는 체계적인 학습체계를 위해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모델이 될 수 있다. 부연하면, 이러한 기초과목을 수강하고 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계획적인 학습모델 개발이 아쉽다. 이 밖에도 강의 시간의 연장 및 학교 내에 시설된 교육매체 활용(예를 들어, 외국어 교육관의 활용 등),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4.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제언

학생들의 설문에 대한 대답을 종합해 볼 때 학생들의 자세는 사뭇 진지함을 엿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 클리닉의 운영에 대한 의견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들의 영어/수학에 대한 학습 준비와 사전 경험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4번 문항). 한편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태도는 상당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임을 엿볼 수 있다.

위에서 우리는 설문조사를 통한 학생들의 상태를 기초학력에 대한 태도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전반적인 기초학력문제 전체의 운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함은 강조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기본으로 본 설문조사에서 더 나아가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이 방안은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 본 것이다.

첫 번째 제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인간성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과 학문적 전문성을 심화하기 위한 전문 교양교육사이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다. 즉, 앞서 보았듯이 대학교육의 기본요건으로 다양한 교양교육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교양교육에 있어 인격함양과 전공분야의 전문 지식을 쌓기 위한 기초학력 교과목간의 차별화가 없다는 것이다. 인격과 여가 활용을 위한 교양교육은 다양한 교육기회가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될 수 있다. 그러나 고등학문을 탐구하기 위한 기초학력의 연마는 여러 면에서 일반교양교육과는 성격이 다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기초학력 과정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 당국의 체계적인 계획 제시와 학생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어 진다. 관련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성적이 못 미치는 학생들로 하여금 선수 과목으로 이러한 기초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것 등이 그 한 예라 하겠다. 이를 위해서 기초학력 테스트가 필요한데, 이는 학생들이 입학당시의 수능의 점수표를 효과적으로 이용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자체적인 시험을 실시하여, 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은 이러한 교양을 받지 않고 한 단계 위의 수업을 받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 사려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초학력에 낙오자가 없는 진정한 의미의 대학교육의 정초를 다질 수 있다 하겠다.

둘째 기초학력과정의 확대를 강조하고 싶다. 본 연구소에서는 영어와 수학에 한해 기초학력 클리닉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았다. 이러한 기초학력과 관련된 과목은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외국의 경우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미국의 플로리다대학의 경우는 학교에서 교양으로 작문이 강조되는데,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학교에 'writing center'라는 기관을 설치하고 전문 상담가를 배치하고, 영문과나 관련 학과에 재학중인 대학원생과 시간강사를 활용해서 작문(레포트, 논문 등)에 애로를 겪고 있는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지도해 주고 있었다. 사실 작문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기 표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기초 능력이라 생각해 볼 때 이의 습득에 강조점을 두는 것은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우리 대학도 실정이 비슷하지 않은가 한다. 다양한 작문교육과 이를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상설 센터 기초학력 교양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실, 학생들에게 물어 보았을 때 간단한 레포트를 어떻게 준비하고 써야 하는 지에 대해 잘 모르다고 응답한 학생이 대부분인 것을 고려해 본다면, 이는 절실한 문제라 하겠다. 이는 단지 한 실질적 예로서 다른 필요한 과목이 있다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구상과 계획은 관련 전문가들의 협의와 의견 수렴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겨지고, 보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른 연구에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습 상담 센터의 건립. 이는 전문적인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한다기보다는 교양 및 기초학력에 관련된 전반적인 상담과 봉사를 제공해주는 복합적인 기관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학생들을 위한 상담의 제공을 하고, 예를 들어, 학생들의 레포트를 작성할 때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이들을 위한 조언과 상담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전문적인 상담원이 주재함으로써 학습과 관련된 상담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4년 혹은 졸업한 후이라도 사회적응 등을 조언해줄 수 있는 전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러한 학습센터의 운영은 학생들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이다.

넷째, 동기부여의 문제. 학습에 있어 동기란 삶에 활력을 주는 인간 심성의 기본적인 요소라 하겠다.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학습에 있어 동기 부여는 부정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다. 직-간접적으로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간략하게나마 언급해 보자.

- 학점으로 인정되는 기초학력 과정의 필요성. 이는 학습의 과정이 학생의 성취에 직접 반영됨으로써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자극을 줄 수 있다. 학생 수준에 맞는 과정의 교과에서 수업을 받게 됨으로써 학생들은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이러한 결과가 직접 성취도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 P/F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학생 지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P란 pass를 상징하는 것으로 학점과 관계없이 다른 과목을 수강하기 전에 통과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F는 fail을 상징하는 것으로 다시 기초 과정을 수강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학생들의 자기 진단을 정확하게 함으로써 다음 학습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예비 진단의 기능을 해 준다 하겠다. 만약 학점에 인정되지 않고 P/F만을 위한 것이라면 학비가 절염하게 책정한다든가 하는 학습절충 방안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한다.

- 다음 단계의 수업을 수강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채택해야 한다. 기초과정 없이 상위의 수업을 수강함으로써 상당수의 학생들은 수업 이해도와 성취도에서 어려움을 겪고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님들 또한 수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은 이러한 기초학력 클리닉과정을 거쳐 나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위의 수업을 이해 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기타 사항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시간대의 조절이다. 일반적으로 강의가 이루어지는 시간을 벗어나 야간에 수업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하였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건의했던 사항 중 하나였다.

6. 결 론

이상에서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가 주관한 제1, 2차 기초학력 클리닉의 운영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았다.(제 1 차 클리닉은 2002학년도 1학기에 5월6일 - 6월 4일, 이어 제 2 차 클리닉은 2002학년도 2학기 9월 28일부터 12월 14일). 본 고에서는 이에 대한 결과를 설문지 분석을 통해 간략히 살펴봄과

아울러 효과적인 기초학력클리닉 운영 방법에 대한 몇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바라고 싶은 것은 이러한 기초학력을 위한 교양 교육의 사례연구가 절실함을 지적하고 앞으로 심화된 연구가 절실히 필요 되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참 고 문 헌

- 정덕기. 1993. "목적의식과 교육실천." *대학교육* 9/10
제주대학교 교양 교육발전계획 (2001)